

발행인

마
남



농촌진흥청 손정수 청장

개방화시대, 농축산업경쟁력은
남다른 연구에 있다



▲ 농촌진흥청 손정수 청장

지난 '05년 11월 30일, 경기 과천의 한 한식점에서는 이색적인 시식회가 눈길을 끌었다. 시식 대상은 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농촌진흥청이 쌀혁명 프로젝트를 통해 아십차게 개발한 톱라이스(Toprice)로 지은 '쌀밥'이었다. 시식을 했던 농림부 박홍수 장관은 "이제 쌀도 품질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됐다"고 운을 뗀 뒤, "노무현 대통령도 쌀 박람회에서 (톱라이스를) 대단히 좋은 쌀이라고 칭찬하셨다"며 격찬했고, 그날 참석했던 경제전문지의 한 기자도 시식회에서의 소회를 적은 칼럼에서 "시식해보니 감칠맛이 감도는 게 확실히 달랐다"며 쌀경쟁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바로 '고품질화'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환기했다. '05년 농촌진흥청이 내놓은 최고의 성과로 꼽히는 '톱라이스', 그 성과를

주도한 농촌진흥청 손정수 청장에게로 많은 시선들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에 피드저널 유동준 발행인 겸 편집인은 지난 1월 16일 수원 농촌진흥청장실에서 손정수 청장을 만나 "개방화 시대, 농축산업경쟁력은 남다른 연구에 있다"는 주제로 대담을 나누었다.

유동준 : 『톱라이스(Top Rice)』의 성과는 매우 기쁜 일이다. 이는 전적으로 손정수 청장의 착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다. 돌파력과 추진력도 한 몫 했을 것으로 안다. 톱라이스가 생산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 달라.

종자개량만 하고 있는 것 바람직 않아

손정수 : 많은 사람들이 쌀 품질은 품종에 달려 있다는 생각으로, 품종 개량에 힘을 써왔다. 하지만, 문제는 품종이 아니다. 여전히 종자개량만 하고 있는 것은, 쌀시장 개방폭이 나날이 커지는 국제시장에서 더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면을 전환시킬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다. 톱라이스는 수입쌀 시판에 대비한 고품질 쌀생산 프로젝트로 추진됐다.

유동준 :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린다. 엉뚱한 곳에 정열을 낭비할 필요 없이 될 만한 일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지적이다. 항간에는 톱라이스 개발을 녹색혁명 이후 두 번째의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말도 나돌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연구과제들이 다 이렇게 빛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간혹 연구과제로만 그치고 마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농진청 연구과제 가운데 축산, 사료부문에서 실용화한 몇 가지를 사례를 소개해 달라.

손정수 : 우리 청에서는 무엇보다 실용화를 목적으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축산사료 분야의 연구개발성과 중에는서도 '유용미 생물을 이용한 사료 첨가제 개발', '남은음 식물 사료화 연구', '한우 고품질생산용 섬유질 배합사료 개발' 등은 모두 관련업체에 기술 이전하였거나, 제품화 했다.

매표원 마인드를 버려야

유동준 : 모두 축산사료업계에서 요긴하게 쓰일 성과라 판단된다. 평소 연구원들에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손정수 : 경기장의 매표원으로 전략하지 말라는 말을 자주 한다. 연구기술직은 자칫하면 현실에 안주하기 쉽다. 경기장에서 현실에 안주한 채 표만 팔고 있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경기에서는 이길 전략이 필요하고, R&D 조직은 그것을 내어놓아야 한다.

유동준 : 그래서인가? 지난 12월 29일 제25차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발표한 '05년도 정보화 평가결과(43개의 중앙

행정기관 대상)를 보면 농진청이 A등급을 받았다. 특별한 방안이 있었는가?

손정수 : 남다른 방안은 없었다. 다만 기존의 것을 잘 활용하고, 일목요연하고 명확한 설명을 했을 뿐이다.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정보시스템만큼 많이 사람들이 정보를 활용했던 점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다.

유동준 : 취임 초부터 새벽같이 출근하고, 휴일까지 반납하며, 부단한 개혁의 의지를 발휘한 노고의 결실이라 생각한다. 올해도 톱라이스에 버금가는 계획을 갖고 있는가?

곤충,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활용



▲ 본지 유동준 발행인 겸 편집인

손정수 : 올해는 과수 부문에서 톱라이스에 버금가는 성과를 내고자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 중국인 상위계층을 타겟으로 10만원을 호가하는 사과를 내다 팔고 있다. 우리나라도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한다. 사과, 배, 포도 등 과수부문에 안정적인 고품질 생산기술을 형성하여, 농가소득을 지금보다 2~3배 끌어 올리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

유동준 : 벌써 기대가 된다. 좋은 성과를 내어주기 바란다. 한편 최근에는 농진청이 곤충이 미래 산업을 바꿀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손정수 : 곤충은 생체방어물질 등 다양한 유용물질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촌 생태계 보존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브랜드효과와 더불어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활용될 것이다. 앞으로 곤충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 이용한다면 분명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특허청 주관 우수직무발명 선정되기도

유동준 : 더욱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2004년에는 축산연구소에서 연구한 “악취물질의 생물학적 처리용 발효제 및 그 제조방법”이 특허 제 0433268호로 등록되었다. 환경문제 및 먹거리의 안전성과 위생문제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고무

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손정수 : 그 기술은 특허청 주관으로 실시한 2005년도 직무발명경진대회에서 우수 직무발명으로 선정되어 제12회 직무발명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04년부터 산업체 기술이전으로 제품이 시판되고 있으며, 환경개선 효과가 뚜렷하여 친환경 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06년 한우 차별화 통한 경쟁력 제고할 터

유동준 : '06년 농진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촌 진흥사업 계획 가운데 축산(사료)부문의 사업계획에 대해 특별히 관심있는 분야가 있는가?

손정수 : 우리 청의 '06년도 축산분야의 주요 중점 추진사항은 한우쇠고기의 차별화를 통한 한우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일본이 전통소인 화우에 대해 철저한 차별화를 통해 수입 쇠고기에 대응하여 성공했듯이 한우도 수입 쇠고기에 비해 품질 면에서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농축산 메카를 떠나는 7개 기관

유동준 : 좋은 성과를 보여주길 기대하겠다. 농촌진흥청도 지역균형 발전 계획에 따라 곧 수원을 떠날 것으로 안다. 언제쯤인가?

손정수 :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원 등 농촌진흥청 소속 7개 기관은 한국토지공사를 포함한 다른 6개 기관과 함께 전라북도로 이전하게 된다. 작년 10월에 이들 13개 기관이 이전하여 조성하게 될 혁신도시 입지로 완주군 이서면과 전주시 효자동 일대가 선정되었다. 금년도에는 혁신도시의 기본구상과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실시계획 수립, 토지보상, 건축 설계 등을 이루어질 계획이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실제 건축공사에 들어가 2012년에 이전을 완료하게 된다. 농촌진흥청 본청의 이전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본청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의거 소속 7개기관과 동반 이전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며, 청 직원들의 정서도 본청이 동반 이전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유등준 : 떠나고 난 자리는 농업박물관 및 근·현대 농업기념관을 만들어 한국농업발전의 지표로 삼거나, 바이오벨트를 형성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혹시 그런 구상이 있다면 운을 띄워 달라.

손정수 : 그러한 의견이 청의 원로들 사이에서도 제시되고 있으나, 이전을 위한 재원을 현재의 부지와 청사를 매각하여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뭐라 말하기는 이르다. 현재 중부권의 농업 연구 기능을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남길 것 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며 향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나면 이와 연계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등준 :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한다. 인터뷰에 응해주어 고맙다. ☎

